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9호 [루게 제24622호] 주체103(2014)년 7월 28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10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고 인민군렬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리영길 동지, 현영철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인민군렬사추모탑앞에는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도착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추모하여 들어총구령을 내리였다.

장중한 애국가주악에 이어 꽃바구니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이룩한 승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수호전에 용약 펼쳐나신 유명무명의 령사들이 발휘한 영웅적위훈이 깃들여있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을 혁명선배로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발휘된 조국수호정신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라고 하시면서 새 세대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대중적영웅주의, 애국주의정신을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미제의 항부서를 밟고 지축을 울리며 전승광장을 행진해간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기상과 본때로 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총참모부, 총정치국, 인민무력부와 군중, 군단급단위 명의로 된 꽃바구니,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땀에는 《영웅적조선인민군 령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인민군렬사묘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진행된 전승절경축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황병서동지, 리영길동지, 현영철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평철성동지, 조경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군중, 군단급단위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로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시였다.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탄력, 탁월한 명도가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백두에서 개척된 전승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여가고있음을 전투적 기백이 넘치는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훌륭히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모신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백전백승한다는 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준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 1950년대 영웅전사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을 빛나게 계승해갈 불같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장례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공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립으로써 불패의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관람자들의 환호에 뜻땀한 답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맞아 경축하고있는 그들을 축하하시였다.

공연무대에는 남성합창 《7.27행진곡》,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관현악과 노래편곡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 경의를 드린다》, 남성합창 《근위부대 자랑가》, 남성독창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욱》,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기술, 비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어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것을 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미래와 의 총포성없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편전편승만을 아로써겨왔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펼쳐왔다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욱》,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기술, 비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어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것을 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미래와 의 총포성없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편전편승만을 아로써겨왔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펼쳐왔다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욱》,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기술, 비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어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것을 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시며 미래와 의 총포성없는 치렬한 대결전에서 편전편승만을 아로써겨왔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펼쳐왔다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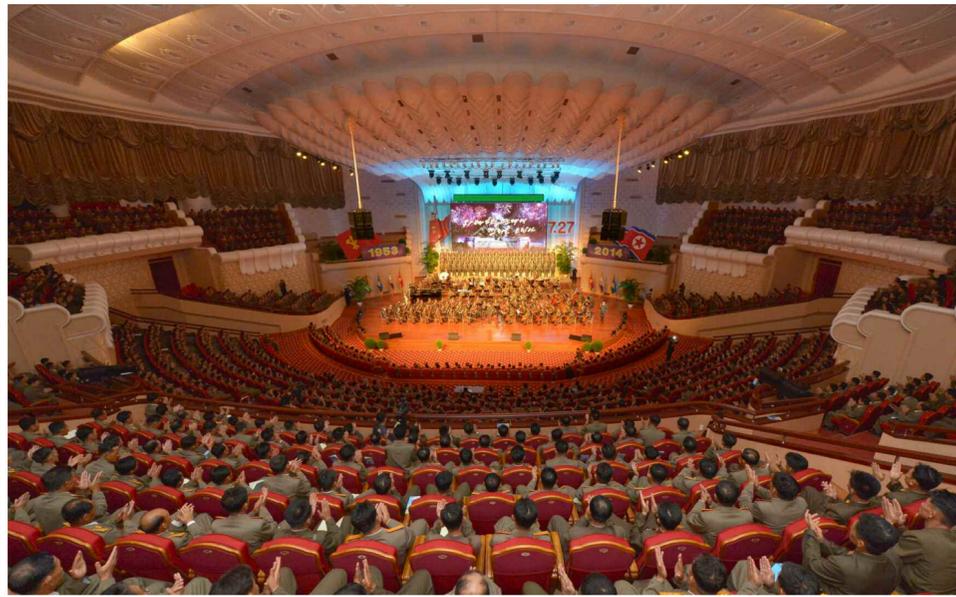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그날의 15분》, 관현악 《병사의 발자욱》, 남성독창 《군항의 저녁》, 남성2중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은 위대한 수호자》, 남성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여성독창과 남성합창 《끝나지 않은 생》, 남성합창 《조국은 영원히 기억하리라》, 혼성2중창과 남성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남성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명도만 받든다》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명활무쌍한 전략기술, 비범한 명군술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조직명도하시어 세계전쟁사에 전무후무한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는것을 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이 앞으로 더욱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립으로써 불패의 군민대단결로 반미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송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7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전략기술로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시였으며 반제반미대결전을 현전전승에 이끄시어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후손대대의 강성번영을 위한 역년기적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칭송과 뜨거운 호모의 정이 어린 훈장보존실들과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김정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제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고자말 굳은 결의를 가다들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아 각지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으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친 군중들의 물결이 끝없이 끊이지 않았다.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

주요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의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있었다. 군중들은 탁월한 력사와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높이 쳐보며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공산총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수도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향에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본사정치정보단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손님들과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그들은 나라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사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사적송용자와 전동차, 배, 열차

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방목록에 글을 남기였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전승의 7.27을 조국통일대업의 승리로 빛내여가자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백두산총대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반제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할것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7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광장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따라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떨쳐온 금지드높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무적의 총대로 역세계 받들어갈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혁명적의지가 세차게 끓어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금수산태양궁전 정면에 모셔져있었다.

원수복을 입으시고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전승의 촉목가 터져오르는 속에 승리한 고지에서 만세의 환호성을 높이 올리는 인민군용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주석단체경중심에 모셔져있었다.

주석단체경중심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장식되어있었으며 《전승》, 《61돐》이라는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반제전승업적을 총대로 더욱 빛내여나가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태양궁전을 결사보위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전화의 나팔에 발취된 영웅전사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가 나붙고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어령들이 서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명예어령대가 주석단량옆에 정렬해있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리영길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초대석과 광장공민에는 평양시안의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자리잡았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총대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반제전승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이룩할것을 맹세하는 연설을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김정일대원수님께 최대의 경의와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말하였다. 7월 27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영웅조선의 불굴의 기개와 민족적존엄을 만방에 과시한 제2해방의 날,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반세기 넘는 장구한 기간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어 아버지수령님의 전승업적을 끝없이 빛내이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에 료레없는 엄숙한 시기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과 인민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1950년대의 전승과 더불어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질 거대한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조국통일대업의 승리로 빛내여나가실 철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혁명강군으로 비상히 강화발전시키시기에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전마다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대승리를 안아오시겠다고 말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기와 세대는 바뀌었지만 백두의 천출위인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승을 떨치며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후손 만대에 같이 빛내어나갈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1950년대 영웅전사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지인 금수산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를 한목숨바쳐 사수하는 김정은제일권위, 제일결사대가 되었다.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는 남강도 미제와 괴뢰적제국들의 군사적합동과 시대착오적인 대결광풍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만약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한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내려있는 미제의 군사기지와 미국의 대도시들을 향하여 핵탄두로켓트들을 발사하게 될것이다.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침략의 원흉인 미제를 그대도 두고서는 정의와 평화도, 인민의 행복도 있을수 없으며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모든 전취물들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것을 뼈에 사무치게 새겨주고있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혁명적명령군체제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든 장병들을 우리 사상, 우리 제도를 옹호보위하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로 역세게 준비시키겠다.

《조선인민의 천천지천수인 미제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구호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싸움준비완성에 총력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무적결승의 최정에 혁명군, 오늘의 김정은백두산으로 만들겠다. 연설자는 전화의 영웅전사들이 승리의 7.27을 안아온것처럼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조국통일대업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최후승리의 금지드높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몇몇이 들어설것이라는것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엄숙히 맹세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조선인민군 제2군단장인 육군중장 김상봉은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영성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달려온 군단장병들의 심장마다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관철하고야말 결사의 각오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싸움준비를 단단히 했다가 수령님의 조국통일명령을 풀어드리자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음성이 울려오것만 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지나가나 미제침략자들과 괴뢰적제국을 쓸어버리고 적의 본거지를 단숨에 깔고 앉을 결전의 시간만을 일일천추로 기다리는 군단안의 전체 장병들의 열적의 기상은 하늘밖에 달랐다. 가스통에도 《흡수통일》, 《평양정평》을 꾸리는 미제침략자들과 청화대의 열간망둥이들에게 별초가 어떨것이고 진짜 전쟁맛, 불마당질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춘 군단장병들은 남녘해방의 공격명령만 기다리고있다. 《일당백》의 구호밑에 강위력한 서부전선 타격전대로 자라난 제2군단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명만 내리시면 백두산번개와 같이 돌입하여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한눈의 원수도 살아남지 못하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겠다.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인 해군상장 김명식은 승리의 7.27을 맞이하는 전체 해군장병들은 해군무력을 창설해주시고 주체적인 해상전법도 가르쳐주시며 세계해전사를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세우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모교를 가슴뜨겁게 돌켜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해군용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원수격멸

의 의지로 가슴끓이고있으며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낼 복수심으로 만장약되어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놈들이 끌고다니는 초대형핵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대위들이 우리 해병들에게는 60여년전에 바다총장이 되어버린 《블리토》 호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묶여있는 《주에블로》 호의 물갈퀴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토론자는 백두령장들의 슬하에서 자라난 바다의 결사대원들은 침략자들이 바다우에 있던 바다속에 있던 모조리 찾아내어 무자비하게 죽여버림으로써 남해를 적들의 검붉은 피가 흐르는 죽음의 바다로 만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리영철은 혁명생애의 마지막까지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이 못 건디게 그리워진다고 말하였다. 전체 항공군장병들이 전세대 비행사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의 반미결사전에서 영웅적위훈의 비행운을 새겨갈 맹세를 심장을 불태우고있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군사에 없는 비행사대회를 마련해주고 하늘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길영조영웅과 14명 육탄용사처럼 저 하늘의 길은 천갈만을 날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비행사들은 돌아올 연유대신 폭탄을 만적제하고 구름속 천리, 불길속 만리도 뚫고나가 제공원을 완전히 장악하며 침략의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타격으로 말끔히 소탕해버릴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자는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무비의 공격정신을 이어 조국통일대업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고 승리의 영예와 존엄을 다시 한번 만방에 떨칠 불타는 결의를 토로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사령관인 전략군상장 김락정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전략군장병들은 1950년대의 투쟁정신으로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을 하루빨리 총결산하고야말 맹세를 가슴끓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회세의 선군령장들께서 첫걸음을 떼어주시고 최첨단수준의 각종 로켓트들로 장비시켜주신 백두산혁명강군의 강위력한 군중인 전략군의 무자비한 타격에서 그러면 침략자들은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남강도 미제와 추종세력들이 그 무슨 요격미사일망위체계라는데 기대를 걸고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번개를 손바닥으로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침략의 아성은 물론 도처에 널려진 미제침략군기자들을 향하여 분노의 판도라케트들을 발사하게 될것이다. 토론자는 전체 전략군장병들은 결전의 시각이 오면 세기를 두고 싸우고싸인 분노를 총폭발시켜 침략의 근원을 초토화해버림으로써 미제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낭독되었다. 이어 광장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기념하는 군위사단, 군위연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의 열병식이 진행되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로동당기, 최고사령관기, 군기중대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입장하였다.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절세의 애국자, 백두의

명장들께서 새겨진 선군혁명승리의 거룩한 자욱을 빛내이려는 인민군장병들의 발구름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쳤다. 전화의 나팔 원수격멸의 대오앞에 휘날리던 포연시킨 구들을 앞세워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군복을 떨쳐입은 군위부대 병사들이 열병행진을 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믿고 따르며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다해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열병대원들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씩씩하게 행진해갔다. 《7.27행진곡》,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의 노래주악속에 서리발치는 총대를 틀어잡고 광장을 누비나가는 군위부대들의 열병대오마디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쪼아놓은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이 힘차게 맥박쳤다. 일단 명명만 내리면 적진을 단숨에 불바다 만들 일당백용사들의 심장의 웨칭인양 《조국의 바다처럼 영생하라》,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 등의 군악이 힘차게 울려 퍼졌다.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주악에 맞추어 승리의 심심드높이 나아가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대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 그대로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령도를 백두산총대 받들어갈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어려있었다. 최정에 혁명강군의 기상을 시위하는 열병행진을 보며 관중들은 전승의 촉목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60여성상 회세의 선군령장들께서 빛내어주시는 백두산대원수님의 승리의 년대기를 금지드높이 추억하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1950년대 7월의 하늘에 메아리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의 환호성이런듯 경축의 촉목가 무수한 불꽃기가 되어 창공높이 날아올라 전승절의 환희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대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러라》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와 열병식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정신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오야말 천만군인의 혁명적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근 위 부 대 자 랑 가

금지높이 멋을 부리면서 (J=120)

작사, 작곡 설대성



1. 노도로 질풍처럼 단숨에 서울에 공화국기발을 날린 무쇠-



철마로 소문난- 근-위 105땅-크사단 미제의



오만한 상승의 사단과 장성들 포위섬멸해 세상에



명성멸친 용감한 싸움군들 근위-4보병사단군기에



그 위훈 빛나는 근위-부대들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영광을 떨치리

2. 바다의 섬이라 떠들던 미제의 침략선 증순양함을
통쾌히 수장한 해군의 영웅한 근위 2어뢰정대
하늘의 요새라 뿔내며 기여든 미제의 공중비적들
가을의 락업 만든 공군의 슬기로운 근위추격기련대
(후렴)

3. 이름만 들어도 원수들 무서워 죽음의 공포에 떨던
멸적의 부대인 진격의 화살 근위 3보병사단
징벌의 포화로 정의의 총칼로 날강도 미제 무절러
멸망의 함정끝에 처넣은 방위자들 근위 2보병사단
(후렴)

4. 광활한 격전장 누비며 진군해 험악한 전과 올리며
락동강 《불퇴의 방어선》도 깨버린 근위 6보병사단
힘준한 산악을 폭풍처럼 넘으며 승전의 포성을 울려
적들을 전멸케 한 그 이름 자랑높은 안동12보병사단
(후렴)

5. 수령의 명령을 결사로 받들어 미제를 격멸한 부대
전승과 더불어 전설로 기억된 자랑찬 근위부대들
조국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에 찬란히 आरो세겨진
그 이름 영원토록 후대를 가슴속에 금지로 빛을 뿌린다
(후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과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에 화환들이,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과 꽃바구니가 려사들과 려사묘의 화환 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려사들과 려사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김기

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최봉해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박병기동지, 오수용동지, 김경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내각부총리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과 꽃바구니진정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

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명명의로 된 화환과 꽃바구니가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

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명명의로 된 화환과 꽃바구니가 애국렬사릉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



대성산혁명렬사릉에 화환진정



애국렬사릉에 화환진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6호 주체103(2014)년 7월 22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며 대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리났으며 맡겨진 수여한다.

2중3대혁명붉은기 국토헌경보호성 중앙양묘장 양묘직장
대동강축전지공장 윤전수산사업소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줄기세포연구소

3대혁명붉은기 려포구역 소신남새전문협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전국집행위원회에 축전을 보내었다

아 부 자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전국집행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나이제리아인민민주당 창건 16돐에 즈음하여 귀 당 전국집행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당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당을 강화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귀 당의 앞으로의 활동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3(2014)년 7월 27일

평양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 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종합공연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 경축 조선인민군협주단 음악무용 종합공연 《우리에게 전 승리의 7.27만이 있다》가 27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조국과 인민의 축하의 노래가 최후승리의 대진군가와 더불어 힘차게 울려 퍼지게 될 공연장소는 선군조선의 혁명적 명철인 전승의 7.27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경축하는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당, 무력기관,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영웅, 전쟁로병, 로력혁신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체민주진선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무관부부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서곡 《7.27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가야금병창과 남성방창 《애봉산의 노래》, 무용 《군인이 한전호에서》, 손풍금 2중주와 관현악 《백두의 발발굽소리》, 남성독창과

무용 《붉은 철령》, 합창 《조선의 장군》, 《미제가 덤벼들면 죽음을 주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선군의 위력으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와 반체민주결전의 편승을 안아오 시고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어 대대손 민족의 강대성과 존엄을 떨쳐 나갈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 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들을 모시고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승승장구

하여온 선군조선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관람자들은 격정을 감지 못하였다. 승리자들의 긍지와 환희가 차넘치는 무대에 전화의 나날 전선과 후방에서 조국보위의 진군가, 원수격멸의 피성으로 울려 퍼졌던 전사가요들이 관현악과 합창으로 메아리쳤다. 위대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온 1950년대의 불굴의 정신과 기백으로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를 반영한 무용 《전초병들》, 혼성3중창과 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악과 노래 《단숨에》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회세의 선군명장, 걸출한 명도자료를 모신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철리를 새겨 주는 《천근한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소리는 선군혁명승리의 새 력사와 더불어 높이 울려갈 수령결사옹위의 노래, 영원한 전승의 찬가로 장내를 진감시켰다. 백두산대국의 존엄이시고 힘있으며 강대성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7.27을 안아올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격동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 려사 추모탑, 려사묘들에
화환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맞으며 27일 각지에 있는 려사들의 동상과 려사릉, 인민군 려사추모탑, 려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는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공장, 기업소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위들을 영예롭게 수호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 천만년 빛내여가리

당의 령도따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영웅조선의 불길의 기상을 힘있게 펼쳐가는 온 나라 천만군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소이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을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각지에 모신 절세위인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인사를 드렸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 기둥이었던 혁명사적지들로 백두산현충위인을 우리르려는 충정의 물결이 끊없이 끓어올랐다.

군중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추종세력들을 타도하고 력사가 일그러지 않도록 군사적기적을 이룩하신

각지에서 전승 61돐을 뜻깊게 경축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천리헤안의 예지와 무비의 담력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각지에 있는 령사들의 동상과 령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령사묘를 찾은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화환과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경하고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표시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극장에서 전승절을 경축하는 공연들이 진행되었다.

수도의 국립연극극장에서는 국립연극단이 출연하는 혁명연극 《승리의 기치따라》 공연이 있었다.

주체적인 군사전략과 전법, 독창적인 평군술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트리고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끈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품모를 감명깊게 펼쳐보인 연극은 관람자들의 심장마다에 위대한 전승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모란봉극장에서 진행된 전승절경축음악회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리의 7.27의 전승을 뜻깊게 이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조국찬가》, 《전진행렬차》 등의 선율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봉화에술극장에서는 국립민속예술단 예술인들의 음악무용 종합공연 《영원한 승리의 7.27》이, 평양대극장에서는 피바다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혁명극 《피바다》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평양교예극장에서도 다채로운 교예종목들이 무대에 올라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자강도에술극장, 함흥대극장을 비롯하여 각지에서도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공연무대에는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남상독창과 합창 《김일성원수님은 우리의 최고사령관》, 설화와 남상중창 《조국보위의 노래》, 녀성독창과 방창 《아무도 몰라》, 《새 고향의 정은 집》, 녀성민요독창 《직동명의

승리방아》, 혼성2중창 《장군님 꽃피우신 선군의 덕이랴》, 합창 《7.27행진곡》을 비롯한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반제반미대전에서 백승을 펼쳐오신 천승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공연들은 관람자들로 하여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만이 약속되어있다는 절의 진리를 더 깊이 간직하게 하였다.

평양시안의 녀맹원들은 당창건기념탑, 평양체육관광장들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전시기요합창공연으로 전승절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가렬한 전회의 나날 불비 쏟아지는 고지들과 후방에서 전승승리를 위해 한복속 바쳐싸운 전세대들의 위훈을 훌륭히 형상한 《진군 또 진군》, 《예봉산의 노래》, 《우리 녀영웅에게》, 《샘물터에서》 등의 노래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

끈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사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자강평에서 진행된 도내대학생들의 전시기요합창공연과 배운의 천리길학생소년군견예술소조원들의 공연도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환희와 광만을 더해주었다.

함흥시 성천구역 녀맹원들은 천승명장들에 대한 다함없는 품모심을 담은 노래들과 전시기요들로 이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쳤다.

세로지구 축산기지건설광과 청년강제단식발전소건설장에서 전경로명들과의 상모모임, 체육경기와 유희오락경기가 진행되었다.

각지 청년학생들은 절세위인들의 령도따라 승리를 펼쳐오신 선군조선의 새세대로서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흥겨운 춤판을 펼치며 전승절을 뜻깊게 장식하였다.

인민군장병들과 각계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마련해주신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철필같이 뭉쳐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혁명적의에 넘쳐있었다.

청년 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당창건기념탑, 개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선군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위대한 승리의 명절을 맞이한 환희에 넘친 청년학생들로 흥성거리고 있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번 다시 구원해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무도회장들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청년학생들은 탁월한 군사전략과 전술, 비범한 평군술로 조국주의 강적을 타도하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만방에

펼쳐주신 위대한 대원수님의 전승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나갔다.

《우리의 7.27》, 《위대한 전승의 명절》 등의 노래속에 아름다운 춤물결을 일으켜나가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백승을 펼쳐오신 선군조선의 청년전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었다.

한평생 혁명의 최전방에 계시며 전설적인 선군혁명평도로 사회주의수호전, 조국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셨으며 장성번영의 만민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생애를 가슴깊이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선군리리》를 비롯한 노래장단에 맞추어 열정적으로 춤

추었다.

《인민의 환희》, 《7.27행진곡》, 《전진행렬차》 등의 경쾌한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회사의 선군명장을 대를 이어 높이 모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자랑찬 승리의 력사는 영원히 흐르리라는 확신에 넘친 청년들의 환희가 무도회장에 깔없이 끓어올랐다.

경축무도회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평도를 맨 앞장에서 총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의 영예를 남김없이 펼쳐갈 청년전위들의 혁명적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시소재지와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대합창 공연 진행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대합창 공연이 27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전승의 축포여 말하

평양시 청소년 학생들의 대합창 공연 진행

《7.27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청년학생들이 경축의 원무를 펼치

었다.

대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가야금독주와 합창 《선군리리》에서 출연자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현명하게 이끄시어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오시게 이 땅 위에 백승의 력사와 전통이 영원히 흐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로병들의 실화무대 《전승의 7.27은 새 대와 세대를 이

어》, 시 《이 기발을 받아달라》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침략자 미제를 쳐부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발휘한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이 힘있게 맥박치는 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트럼베트3중주와 합창 《하 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휘주악과 태권도 《평양날과람》은 전회의 나날 조국의 한 치 땅을 지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전세대 청년들처럼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해나갈 새 세대들의 굳은 결의를 잘 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명명하신 내리시던 반미결전장에 용약 달려나가 최후승리의 7.27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한몸 다 바칠 청소년학생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대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로 끝났다.

차회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 로병들, 평양시내 청소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총련 중앙강연회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경축 총련중앙강연회가 26일 도포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강연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강연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들, 국장들, 중앙단체와 사업체 책임일꾼들, 간도 지방의 총련일꾼들, 조선대학교 교원들이 참가하였다.

리영수 제일본조선사외과학자협회 회장이 《반미전면결전을 최후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명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4년 신년사에서 올해가 선군조선의 변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고 지적하신데 대해 언급하였다.

오늘의 반미전면결전은 정치, 군사, 경제, 문화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의 주체의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전면대결이며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위력을 최대한 발휘시켜 제국주의를 압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

하였다.

오늘 공화국은 날로 가증되는 적들의 발악적책동을 거부하며 승리를 이룩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에 의하여 반미전면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그날은 멀지 않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명도길에 조선인민군이 필승불패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되어온데 대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였다.

미제 바친 항복서를 받고 1950년대의 승리자들이 모두 당당히 지나온 전승의 열병광장을 조국통일의 열병광장으로 곧바로 이어가려는 새 세대들의 불타오르는 마음어린듯 작렬하는 축포의 화광이 선군조선의 하늘가를 붉게 물들여었다.



평양체육관광장에서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로 이어질 7월의 축포성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을 경축하여 27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이날 저녁 주체사상탑이 솟아 있는 대동강반을 중심으로 김일성광장과 만수대연덕, 옥류교 등 수도의 곳곳은 환희의 축포성이 터져오를 순간을 기다리는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천

자를 진감하는 피성과 함께 천갈래, 만갈래 불기둥이 수도의 하늘높이 솟구쳐오르며 장엄한 불의 대서사시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시대의 력사, 조국과 인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경의와 축하인양 천대만상의 축포가 황홀경을 이루며 장대하게 터져올랐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도하고 급별의 위

할수 있었습디다.》

루례없이 가렬한 반제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시대의 력사, 조국과 인민이 드리는 다함없는 경의와 축하인양 천대만상의 축포가 황홀경을 이루며 장대하게 터져올랐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도하고 급별의 위

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등의 노래선율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축포들이 연방 날아올랐다.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김일성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천만민족의 무한한 흠모심을 담아 총천하는 화광이

수도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물들였다.

시간이 흐름수록 천변만화는 불의 황홀경은 사람들을 환희와 격정의 무아경으로 이끌어 갔다.

조선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진군로를 열어주시고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총정대해 받

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반영한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의 노래소리와 더불어 전승절분위기는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7.27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의 령도따라 백두산대국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파시하였다.

미제 바친 항복서를 받고 1950년대의 승리자들이 모두 당당히 지나온 전승의 열병광장을 조국통일의 열병광장으로 곧바로 이어가려는 새 세대들의 불타오르는 마음어린듯 작렬하는 축포의 화광이 선군조선의 하늘가를 붉게 물들여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적조선인민의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다

전승의 7.27이 있어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회세의 선군명장이신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승리와 자부심을 안고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승 61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높은 존엄과 권위, 우리 인민의 자주적성과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대전승의 거세한 활력은 승리의 7.27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저 하늘을 밝히려 터져오른 전승의 축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여주는가. 그것은 위대한 전승의 7.27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무궁무진한 내 조국의 밝은 래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반반 우리 민족사에 처음으로 진행된 인민의 국가를 세우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켜주신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이 있고 탁월한 전략전술과 현명한 영도로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이 있어 우리 인민의 존엄높고 영광스러운 오늘이 있으며 무궁무진 영활 우리 조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우리 나라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세계가 경이하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돌진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를 통가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없이 일

떠서고 어디서나 행복의 열매들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압박정책이 더욱 로골화되고 있지만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결코 막을수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이 있기때문이다.

두해전 7월 어느날, 조국해방전쟁승리 기념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소년 우리 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을 타승할수 있는것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상이 있고 탁월한 전략전술이 있었으며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한마디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그렇다. 전승의 7.27은 바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위대한 사상의 승리, 탁월한 전략전술의 승리,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인 것이다.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은 가벌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사상적단결의 전쟁이었다. 남조선피괴물들을 사육하여 불의적인 무력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킨 미제는 15개 추종국가군대와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여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전쟁방법을 다 적용하였다. 수적으로나 군사기술장비수준에서 대대도 할수 없는 이 전쟁의 운명에 대하여 세계가 우려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었다.

독창성과 과학성, 명확한 지략과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위대한 수령님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은 세계가 이미 평한 전쟁의 운명을 뒤집어엎고 우리가 전쟁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쥐고 승리만을 떨칠수 있게 한 결정적요인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르며 그이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칙의 신념을 지니고 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민족의 자주권과 혁명의 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게 되었고 사회주의건설의 넓은 길에 들어설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하여 세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천하제일영장으로 우러르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미제국주의의 멸망의 시초를 열어놓은 영웅조선으로 자랑될치게 되었다.

위대한 전승의 7.27은 바로 탁월한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 밑에 전진력의 강자들로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수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역사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서 6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때로는 전진하고 시대는 변하였지만 미제의 침략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1960년대의 《우에블로》호사건과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90년대의 광란적인 핵위협공과 군사적 압력...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천재적인

전 승 의 축 포

◇ 61년전 7월 전쟁의 승리를 경축하여 조선의 반하늘가에 축포가 터져올랐다. 승리자들의 머리위에 아름답게 뿌려지는 축하의 꽃보라, 환희의 불보라였다.

역사적인 그날을 돌이켜보며 지난해 7월 27일 《알 카데라》가 보도한 내용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1953년 7월 27일 미국은 항복서나 다름없는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전쟁에서의 참패로 미국에서 탄식과 슬픔이 커가고있을 때 조선에서는 전승의 축포가 오르고 승리자들의 환희성이 터져올랐다.》

그렇다. 정전협정체결후 미국땅에서는 조선전쟁을 도발하고 참패를 당한 수치를 하여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탄하는 비명소리만이 끊임없이 울려나왔다. 백악관과 그리고 제 남편과 자식들을 조선전선에 내보냈던 미국의 출한 가정들에서도 비애와 치욕의 눈물이 줄줄이 쏟아져내렸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축포를 터칠수 있는 권리는 승리자들에게만 있다.

◇ 7.27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이 진보적인류의 마음도 함께 담아 삼가 올리는 다함없는 감사와 송고한 경의의 축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령장사이며 군사영의 영재이시다.》

조선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는가? 이것은 조선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세계가 품은 의문이었다.

조선과 맞선 적수는 미국이었다. 영도상으로서나 인구수, 경제적잠재력과 무장장비수준 등에서 대

조선은 반미대결전에서 련전 련승 할것이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1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신문, 방송들이 특집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엔두드》 6월 25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김일성주석의 혁명활동실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비범한 군사적재능과 탁월한 전략전술, 군대와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전쟁은 창건전지 2년도 안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강대성》을 자랑하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치렬한 정치, 군사적대결이었다.

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 군대와 인민을 조국수호성전으로 불리우시였으며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시어 미제에게 무지한 섬멸적타격을 안기신데 대해 자료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전쟁기간 전선과 후방을 위임없이 오가시며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시고 친어버이사랑을

조선전쟁에서 쓰리쓴 참패를 당한 침략자들의 비참한 말로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독단, 전횡, 강권, 내정 간섭.

벌써 오래전에 세계는 미국에 이런 고질적인

끝나지 않는 스노우덴사건

스노우덴이라는 이름이 국제사회의 화제거리로 되어온지도 이제 1년이 퍼그나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세상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이 다른 나라들을 대상으로 강행한 미국의 정탐모략행동이 이진 미중앙정보국 요원이었던 그에 의하여 세상에 발각되었다. 그의 폭로로 미국은 정탐모략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다 시한번 드러내놓았다.

올해에도 스노우덴은 세계 여러 지역과 나라에서 벌어지고있는 여러 정탐활동들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많은

렘 탐군들이 당하는 웅 당 한 불 변

미국의 비렬한 도청 및 정탐모략행동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적대국은 물론 가까운 동맹국들속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두차

배를 주시는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참으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는 김일성대원수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의 승리, 열화같은 인민사랑의 대승리였다고 신문은 강조하였다.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브리모리야》 7월 15일부는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인민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쳐부시고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미제는 전쟁에서 당한 패배에서 교훈을 찾는데서 오늘도대조선적대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10일 기내국내, 국제방송과 7개 민족어 방송은 1953년 7월 27일 항복서나 다름없는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미제가 전후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켜왔지만 그때마다 실패를 면치 못한데 대해 전하고 조선의 7.27은 반미대결에서의 련전련승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랍의 락원》에 떠도는 먹장구름

에로부터 서남아시아의 아랍반도 남서부에 《아랍의 락원》으로 불리우는 나라가 있다. 예멘사람들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자연지리환경이 나무랄데 없다고 하여 자기 나라를 이렇게 불렀다고 한다. 예멘이란 말은 아랍어로 《락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오늘 예멘의 불안정한 정치정세는 《아랍의 락원》과는 너무도 상반되는것이 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예멘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으로 변하였다.

이 나라 북부 알만주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시아파이슬람교 반란군과 수니파이슬람교 부족민들사이의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싸움으로 하여 이달에 들어와서만도 약 300여명의 죽음을 냈다고 한다. 알만주에서의 폭력행위는 정부군과 반란주의자들사이로 편제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고 남부와 동남부지역에서 《알 카에다》 세력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나고 있다.

정세분석자들은 총선정을 앞두고있는데 그루를 받고 예멘에서 발생하고있는 모든 폭력행위가 정치적인 동기가 없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나고 있다.

분열은 곧 붕괴를 의미한다. 사나움대학 사회정치학 교수는 알만주에서의 총돌은 정권을 장악하려는 분파들의

야망을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세계 분파들이 자기 분파의 단독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무장충돌을 포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 어느 그루부도 혼자서는 통치하지 못할것이다. 만일 서로 단결하여 모든 분파들을 포괄하는 효력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파도기는 종말을 고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먹장구름을 몰아오는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원래 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오랜 세월 남북으로 갈라져있다가 1990년 5월 초에 수립된 과도정체임정부이다. 이로부터 이 나라에 뿌리깊은 여러 교과간, 종족간 정치적대립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멘은 전반적인 지역들에서 종족들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북부에서는 중앙의 조지예멘을 품은 엘 후우티의 지지자들이, 남부에서는 자기의 국가를 새로 세우면 살기가 훨씬 더 좋을것이라고 간주하고있는 예멘의 분립주의세력이 활동하고있다. 하지만 예멘이 오늘날의 힘약한 사태로까지 발전할 정도는 아니었다.

예멘의 현 세대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이익이 낳은 정치적 산물이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반미로전》화대정책이 예멘의 정치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예멘에 정권을 장악하려는 분파들의

다고 하면서 《테로분자소탕》을 떠돌며 이 나라에 대한 군사적개입에 나섰다.

이것은 수많은 사망자와 피난민만을 산생시켰다. 교과간, 정치파벌들사이의 균형을 나날이 격화시켜 반목질적인 충돌이 그칠새 없는 나라로 되었다.

미국이 《테로분자소탕》의 미명하에 단행한 무인기공격으로 목숨을 잃은것은 테로분자가 아닌 민간인들이었다.

2002년에 무인기공습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예멘의 평화적주민 2500여명이 죽었다.

예멘정세의 악화는 또한 미군이 일구어 온 《색갈혁명》바람에 휘말려든데 있다. 지난 3년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으로 예멘을 비롯한 나라들이 입은 경제적 실추액은 약 800억 US\$에 달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아랍의 봄》의 후과로 예멘에서는 혼란과 무질서가 성행하여 서로 죽일내가 날것을 치열해지고있다. 오죽하면 이런 미국무성 중동담당 정보사무소 부국장까지도 시아프리카의 사해지역과 리비아로부터 수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예멘에 이르는 사해로까지 번져갈 정도는 아니었다.

예멘의 현 세대는 미국의 지배주의적이익이 낳은 정치적 산물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이 나라에서 그 무슨 《정전협정》과 《테로박멸》을 떠돌며 원조나 위하하는떠우로 정치군사적개입의 폭을 넓히려 하고있다.

저들의 국가적이익이 존재하는 나라와 지역들에서 권력욕에 환장한 반란분자들을 종족분쟁과 내란으로 추동하여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남부에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주요해상운송로인 아덴항이 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은 예멘을 전략적요충지로, 지배주의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여기고있다. 미국에 있어서 예멘에서의 《테로분자소탕》은 한갓 수리에 불과하다.

그러한 현실을 두고 국제사회는 예멘이 제2의 이라크처럼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에 의해 분열된 위기에 처한 이라크, 내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간섭으로 이 나라는 악몽에 시달리고있다.

《예멘에서 이라크시나리오가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폭력행위는 더 많은 폭력행위와 인간피해를 낳을것이다. 후우티반란자들의 폭력행위로 더 많은 호전분자들이 이라크-예멘의 이슬람교 국가처럼 정세를 바로잡는다는 미명하에 무장을 들고 나설수 있다.》고 한 아랍정치연구 및 발전센터의 나빌 알부키리의 말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여러 세력들이 이 반목과 질시, 대립과 충돌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진정한 《아랍의 락원》을 건설하려면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간섭행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

본사기자 박송영